진동(振動), 잔잔하게 메아리치는 의미의 이중성

한병길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행위자와 작품

갤러리 그림손에서 '진동(振動)'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윤기언(尹基彦)의 작품을 보면, 수많은 손들이 모여서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처음 보는 이들은 왜 그렇게 많은 손을 그렸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작가가 자신의 손을 매개로 하여 작품을 표현하게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는 아니다. 학창시절에 손을 묘사하며 그림을 배우게되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에 내재된 언어적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다. 작가는 2007년 작품〈話 talk〉에서부터 손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가 오른손잡이여서 주로 왼손을 보고 오른손으로 그린다.

작가는 자아에 대한 고뇌 그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작업방식을 찾으려는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손'을 통해 자신의 관념을 표현한다. 그는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행위할 수 있는 성찰성이 있다. 작가가 작품행위를 하는 것은 갈등과 모순으로 가득찬 사회구조 속에서 제약을 받아이루어지면서도, 작가는 그를 둘러싼 한국화 화풍이란 구조에 변형을 가해 새로운 작업 기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자이다. 이러한 행위능력에 의해 '손'을 매개로 한작품들이 관람객에게 선보여진 것이다.

멈추어 있으면서도 움직이는 메아리의 진동

이번 전시작품에서는 하나의 항이 다른 항과 반대의 것으로 전환되는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을 통해 손이라는 기호를 매개로 하여 지시되면서도, 하나의 항이 다른 항과 다르지 않다는 열린 해석이 내재되어 있다. 손들을 그린 그림을 멀리서 보면 보자기인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주먹으로 표현되어 있는 등, 기호가 가진 본래의 의미가 변할 수 있다. 갖가지의 손동작이 그것에 매개되어 있는 연관관계를 통해 다양하게 표현되면서,

기호가 지녔던 본래의 의미는 해석학적 순환 속에서 또는 이중성 속에서 또다른 의미들을 간직하게 된다.

작가는 〈메아리〉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상황을 가늘고 굵게, 흐리고 진하게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그가 하나의 손에서 다른 손으로 반복해 그리는 상황에서 손의 진동이 표현된 것이다. 소리의 파장 그리고 소리가 움직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세필로 그린 배접지를 여러 장 겹치고 채색의 농담을 달리하여 그린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옅게 그린 수묵담채 속에서 화면이 흔들리는 듯하게 눈을 어지럽히는 미세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의 작품의 특징이다. 이것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암시하는 지시적 관계에 있다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해석이 아니라,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주면서도 다른 하나에 의해 어느 하나가 영향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의 이중성이 있다. 한 장, 한 장의 장지에서는 손들이 멈추어 있으면서도 여러 장지들을 겹쳐놓았을 때는 움직이는,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한 제약이자 가능성을 주는 이중성이 표현되어 있다.

진동 그리고 구조의 이중성

이번 전시회에서 작가는 절대성과 상대성, 정지함과 움직임, 청각과 그것의 시각화, 그리고 하나의 손에서 다른 손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손의 운동으로 표현한다. 그의 작품을 보면 단순하지만 손의 진동을 통한 변화가 표현되어 있고, 강하지 않지만 미묘한 기호의 울림이 그림을 보는 이에게 전달되는 매력이 있다. 반면 작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상해낸 결과물을 담은 '손'의 진동을 통한 미세한 움직임들이, 작품을 보는 관람자에게 그다지 크지 않은 진동의 메아리로 전달될 수도 있다.

갈등과 모순으로 가득찬 현대사회에서 노동집약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작업활동을 추구하고 있는 작가의 행위에 의해 '손'을 모티프로 한 '진동'이란 주제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이것은 한국미술계라는 정치적 구조에 의해 작가의 작품행위가 제약을 받았으면서도, 성찰력 있는 작가의 행위에 의해 손을 매개로 한 새로운 기법의 작품들로 표현되어 미술계에 미미하면서도 신선한 창작활동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화상을 반복해 그려서 얼굴이 아닌 손짓으로, 주먹을 쥐거나 편 정지 이미지를 배접지 여러 장으로 겹쳐 움직이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등과 같이, 자화상은 하나하나가 얼굴이면서도 다수가 모이면 손짓으로 되는, 마찬가지로 멀리서 보면

손짓이면서도 가까이에서 보면 얼굴인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얼굴을 반복해 그려서 손짓으로 표현하는 것 등과 같은 작업은 작가의 행위에 의해 새로운 기법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반면 작가는 자신을 둘러싼 그리고 자신이 창작해낸 기법에 의해 제약을 받으면서도 그 기법을 유지하거나 변형시켜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작가의 창작행위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고 구조화하고 있는 작업기법들이 그의 전시회 제목과 같이 미술계에 잔잔한 진동으로 메아리치기를 기대한다.

[번역 용어]

(앤서니 기든스 Anthony Giddens 구조화이론 theory of structuration) **구조의 이중성** the duality of structure 해석학적 순환 hermeneutic circle 한병길 Han, Byung-geel